

##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연구

이진윤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박사

### 요약

이 논문은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과 방법을 활용하여 드레스 디자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드레스의 등장과 특성을 시대별로 고찰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서 드레스의 디자인적 의의를 이해하고 초현실주의가 패션에 활용된 표현기법으로 드레스디자인을 하고자 했다. 초현실주의 회화를 통한 표현기법은 크게 추상적 초현실주의와 사실적 초현실주의로 분류되며, 오토마티즘, 데페이즈망, 콜라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와 같은 표현기법들이 있다. 초현실주의가 패션에 나타난 표현기법으로는 외부와 내부의 차용과 전치, 형태의 변형 및 과장 등의 왜곡, 드로잉 및 소재 실루엣에 의한 착시가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영감이 된 그리핀&사비네 소설에 실려 있는 일러스트에서는 오토마티즘, 데페이즈망, 콜라주 등 다양한 초현실주의의 시각적 표현기법들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 중 인체의 전치효과로 표현된 그리핀&사비네 소설내의 인체 드로잉작품을 활용하여 표현되었으며, 실루엣에 의한 착시효과로 드레스와 재킷을 함께 이용한 드레이핑으로 디자인 하였다. 특히 작품제작에서 데님 소재에 마치 워싱 가공으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레이저로 가공을 하여 워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프린트로 된 것처럼 사실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전치효과와 소재의 착시효과를 동시에 표현하였다. 데님 재킷드레스의 디자인과 제작 표현방법은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고, 드레스와 재킷을 함께 드레이핑된 디자인은 창의적인 패턴 교육과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드레이핑, 이브닝드레스, 표현기법, 초현실주의, 착시

## I. 서론

현대 사회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평범함과 대중적인 것보다는 개성 있고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감성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런 감성의 충족은 현실의 피곤함을 벗어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상상하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런 이유로 초현실주의는 사람들의 내면적 공포와 정신적 허무를 위로하기 위해서 등장하며 현실세계의 도피처로 꿈과 무의식 세계를 지향했으며 패션 영역에서의 활동도 활발히 일어난다. 이러한 초현실주의 정신과 패션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회자 되었고, 현대 패션에 있어서도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브닝드레스는 낮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복 형태와 구분되어, 환상성과 섹시한 매력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최근 국내외 연예인들이 각종 영화제 시상식 의상과 대중적인 파티문화의 정착으로 드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평생에 단 한번 입을 웨딩드레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단 하루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고가의 드레스를 대여하고 구입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 근본적인 목적인 형식과 주제로부터 탈피하고 저항하면서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환상성을 포함한 이브닝드레스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사적고찰을 통해 드레스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고찰하여 드레스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며, 초현실주의 작품을 통해서 표현된 기법과 패션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초현실주의 영감으로 입체패딩인 드레이핑을 이용해 패턴 제작하고 디자인과 작품 제작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복식미학, 복식사 및 각종 패션 관련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

드레스에 변천과정의 실례를 문헌 조사하고 분석하여 드레스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디자인의 영감으로 초현실주의 회화 작품을 통한 초현실주의의 개념 및 표현기법을 알아보고 초현실주의가 활용된 패션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자 했다. 또 드레이핑을 활용하여 초현실주의를 표현한 디자인을 하고,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로 이브닝드레스의 역사적 고찰은 패션 전문 서적, 학회논문 및 『100 Dresses』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The Metropolitan of Museum of Art)에서 실제 전시 작품으로 조사하였으며, 표기는 수석디자이너의 이름 대신 브랜드의 이름으로 표기를 하였다. 초현실주의의 개념 및 작품에 대한 해석은 표현 기법을 중심으로 했으며, 영감의 원천이 된 닉 벤톡의 비주얼 소셜 그리핀&사비네 내의 편지와 엽서의 그림 또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과 독창적인 패턴 개발을 통해 산업 현장과 디자인 패턴교육 분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 II. 일반적 고찰

### 1. 용어정의

이브닝드레스(evening dress)는 밤의 정장으로 야회복이라고도 하며, 사전적 의미는 밤의 파티나 극장 관람 등에 착용되고 가슴이나 등 어깨를 노출시킨 디자인이라 하였다. 또한 화려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기도 했으며, 예전에는 소매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길어도 끌릴 정도로 긴 것이 보통이었으나 짧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sup>1)</sup> 이브닝드레스를 또는 이브닝 가운(evening gow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벨트나 띠를 매지 않

는 길고 험령한 겉옷·상의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모든 타입의 여성용 드레스를 포함하며 포멀 드레스나 화려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가리킬 때가 많다. 이를테면 이브닝 파티용의 드레스를 이브닝 가운, 신부가 입는 드레스를 웨딩 가운 또는 브라이들 가운이라고 한다. 또한 18세기 초두의 프랑스의 화가 와토(Jean Antoine Watteau, 1684~1721)가 그린 로코코 시대의 드레스, 와토 가운도 있다. 이 경우의 가운은 단이 끌리는 정도의 길이라도 반드시 험령한 실루엣의 것은 아니다<sup>2)</sup>. 이브닝드레스는 낮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복의 형태와 구분되어, 환상성과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아이템이다. 전통적으로 길이가 긴 형태이며 은폐와 전략적인 노출로 착용자의 매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브닝드레스와 이브닝 가운을 같은 용어로 사용한다. 일찍이 1920년대 미국학자 에밀리 포스트(Emily Post)는 이브닝드레스를 분류하면서, 디너 드레스, 볼 드레스, 인포멀 디너 드레스, 티 가운(tea gown) 등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sup>3)</sup>, 각테일드레스는 티 가운에 기원<sup>4)</sup>을 둔 것이다. 이브닝드레스에 속한 드레스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볼 드레스(ball dress)는 야간 파티에 나갈 때 치장하는 이브닝드레스의 일종이고 화려한 분위기를 내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디너 드레스는 저녁시간에 만찬회나 연극관람 등에 입는 옷으로 포멀 드레스보다 약식이고, 길이는 긴 것이 보통이나 평상복처럼 짧은 것도 많고, 대부분 소매가 달려 있어 몸의 노출도 정식 이브닝드레스보다 덜한 것이다.<sup>5)</sup> 티 가운은 이브닝에 집에서 접대하기 위해 적당한 복장으로 19세기 말 진화한 비 예식적인 이브닝드레스이다. 반면에 로브 데콜레(robe décolletée)는 프랑스어로 데콜레는 ‘옷깃을 넓게 트다’란 뜻이며 네크라인을 크게 트고 목덜미나 앞기슴을 드러낸 정장용 이브닝드레스이고 이브닝드레스 중에서도 가장 장식적인 복장이다.<sup>6)</sup> 각테일 드레스(cocktail

dress)는 각테일파티 때 입는 옷이며, 파티는 저녁부터 밤에 걸쳐 열림으로 드레스보다는 화려하고 포멀 드레스만큼은 호화롭지 않은 것이다. 프랑스어로 로브 드 콕테일(robe de cocktail)이라고 부른다.

## 2. 드레스의 등장과 특징

이브닝드레스라는 용어는 17세기말경 유럽 살롱 문화 시기에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브닝드레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때의 데이 드레스(day dress)와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 별로 없었다.<sup>7)</sup> 게다가 이브닝드레스의 독특한 특징이 형성된 정확한 시기는 복식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sup>8)</sup> 하지만 19세기 중반쯤 빅토리아시대에 밤의 사교 장소에 신체를 많이 노출한 드레스를 입게 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대한 관념이 생기면서 이브닝드레스의 특성이 형성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19세기 1870년대 이후 버슬 스타일과 S자형 스타일은 여성 가슴과 엉덩이 곡선을 강조하여 1877년에 걸쳐 버슬이 사라졌다가 1880년대부터 스커트의 강조점이 엉덩이 쪽으로 점차 옮겨지게 되었다<그림 1>.<sup>9)</sup> 1885년에는 엉덩이가 거의 직각이 될 정도로 돌출되는 절정기를 맞이하였다<그림 2>. 1988년에는 아워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이 되면서 돌출되었던 큰 버슬은 크기가 약화되고, 소매와 어깨의 장식으로 형태를 부풀려 주었다<그림 3>. 1900년대에는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며 가슴은 앞으로 내밀게 되는 <그림 4>와 같이 S-커브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다. 폴 뽀아레(Paul Poiret)는 아내를 위해서 코르셋이 없는 드레스를 만들어 파리 여성들의 의상이 바뀌게 되었다. 마리아노 포트니(Mariano Fortuny)는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로서 코르셋이 사라진 형태로 허리선이 바스트라인(bust line)으로 올라갔고, 스커트는 스트레이트 롱 실루엣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5>.<sup>10)</sup> 그 이후 폴 뽀아레는 구조적으로도 심플하고 스커트는 앞과



<그림 1>  
1880  
(출처: 『100 Dresses』, 2010, p.40)



<그림 2>  
1884-1886  
(출처: 『100 Dresses』, 2010, p.42)



<그림 3>  
house of Worth, 1898-1900  
(출처: 『100 Dresses』, 2010, p.48)



<그림 4>  
Callot Soeurs, 1910-1914  
(출처: 『100 Dresses』, 2010, p.54)



<그림 5>  
Mariano Fortuny, 1871-1949  
(출처: 『100 Dresses』, 2010, p.60)



<그림 6>  
Paul Poiret, 1879-1944  
(출처: 『100 Dresses』, 2010, p.65)



<그림 7>  
Chanel, 1926-1927  
(출처: 『100 Dresses』, 2010, p.71)



<그림 8>  
Louisboulanger, 1878-1950  
(출처: 『100 Dresses』, 2010, p.77)

뒤의 두 장의 패턴과 하나의 소재로 만들어져 현대적인 이브닝드레스 디자인의 시초가 된 디자인이다<그림 6>. 또한 샤넬은 1920년대에 메탈릭 레이스와 비즈 장식으로 이브닝드레스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했다<그림 7>. 루이스볼랑거(Louisboulanger)의 댄스 드레스는 깊게 파인 브이 넥 라인(v-neckline)과 스카프로 연출했으며 허리라인을 알 수 없게 직선라인에 깃털로 덮인 스커트 부분에 연결하여 댄스드레스를 디자인하여 현대적인 구조를 가진 디자인을 했다<그림 8>. 초현실주의가 패션에 반영된 드레스들이 나타나고<그림 9>, 1939년에는 슬림 앤 롱(slim&long)스타일로 등이 많이 파지고 바이어스로 재단된 드레스<그림 10>가 나타났다.

1947년 자크 패스(Jacques Fath)는 보닝(boning)이 들어간 코르셋(corset)이 아래의 셸 핑크 새틴(shell pink satin)을 허리에서 눌러 엘리건트(elegant)

한 드레스를 만들었다<그림 11>. 1940년대 디올(Dior)의 뉴욕의 영향으로 드레스는 스커트의 길이가 길고 플레이어가 많은 글래머러스한 드레스가 나타났다<그림 12>. Madame Gres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손으로 직접 플리츠를 만들어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한 이브닝 가운을 만들었다<그림 13>.

1960년대는 활동적이고 단순한 스타일과 함께 관능적인 스타일이 유행하여 크리스토퍼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는 미래적이고 활동적인 디자인을 플라밍고 드레스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 했다<그림 14>. 1970년대는 스트리트(street)의 영향을 받아 실험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와 형태가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이국적인 형태와 직물자수를 표현한 입생노랑 드레스가 그 예다<그림 15>. 1987년 크리스찬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는 파투(Patou)의 손으로 소재를 구기듯 볼륨을 스커트에 만들어 프린지나 비딩(beading)을 하지 않아도



<그림 9>  
Chanel, 1938-1939 F/W  
(출처: 『100 Dresses』, 2010, p.91)



<그림 10>  
Madeleine Vionnet, 1938 S/S  
(출처: 『100 Dresses』, 2010, p.93)



<그림 11>  
Jacques Fath, 1947 S/S  
(출처: 『100 Dresses』, 2010, p.111)



<그림 12>  
Christian Dior, 1949-1950 F/W  
(출처: 『100 Dresses』, 2010, p.115)



<그림 13>  
Madame Gres, 1954 F/W  
(출처: 『100 Dresses』, 2010, p.124)



<그림 14>  
Cristobal Balenciaga, 1960-1965 F/W  
(출처: 『100 Dresses』, 2010, p.136)



<그림 15>  
Yves Saint Laurent, 1976-1977 F/W  
(출처: 『100 Dresses』, 2010, p.163)



<그림 16>  
Christian Lacroix, 1987 F/W  
(출처: 『100 Dresses』, 2010, p.172)

효과적인 이브닝 가운을 만들었다<그림 16>.

1990년대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콜레보레이션(collaboration)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컬러가 프린트된 작품들에 영향을 받았다. 그 중 베르사체(Versace)는 팝아트와 초현실주의의 독특한 매력으로 베르사체의 로고와 앤디워홀(Andy Warhol)의 시대의 아이콘인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와 제임스 딘(James Dean)의 얼굴을 프린트한 작품에 영향을 받은 이브닝드레스를 만들기도 했다<그림 17>.

1995년도 탐 포트(Tom ford)의 구찌(Gucci)컬렉션에서는 실크 저지(jersey)로 1930년도의 할스톤(Halston)의 영향으로 옆 사이드를 컷아웃(cutout)하여 토르소가 보이게 섹시한 이미지의 이브닝드레스를 만들어 탐 포트의 에스테틱(aesthetic)을 만들기도 했다<그림 18>. 2003년 알렉산더 맥퀸은 아이보리(Ivory) 실크 오간자를 반복적으로 레이어를 두면서 겹쳐 쌓아 만든 “Oyster” 볼륨 스커트에와

이어를 넣은 코르셋 탑과 연결하여 마치 굴이 움직이는 것처럼 바이올런트 액션(violent action)을 만들어내는 드레스를 만들었다<그림 19>. 2005년 요지 야마모토는 마담 그레(Madame Gres)에 영감을 받아 실크 주름으로 만든 부조조각을 연상시키는 아방가르드한 드레스를 만들었다<그림 20>. 빅토리아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드레스는 다양한 테마와 소재, 형태를 가지고 발전해 오고 있다.

### 3. 드레스 디자인의 선행연구 및 디자인적 의의

현대에는 다양한 놀이문화와 함께 파티문화가 과거와는 달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드레스는 남이 입지 않는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해야 하며 더불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패션은



<그림 17>  
Gianni Versace, 1991 S/S  
(출처: 「100 Dresses」, 2010,  
p.185)



<그림 18>  
Gucci, 1996-1997 S/S  
(출처: 「100 Dresses」, 2010,  
p.1995)



<그림 19>  
Alexander McQueen, 2003 S/S  
(출처: 「100 Dresses」, 2010,  
p.211)



<그림 20>  
Yohji Yamamoto, 2005 S/S  
(출처: 「100 Dresses」, 2010,  
p.213)

드레스의 다양한 연구와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현대 여성들의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충족과 더불어 드레스 시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드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기레(2002)<sup>11)</sup>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블랙 드레스는 실루엣에서 단순형 밀착형, 노출형 세 가지의 형태와 무광택 소재, 투명소재, 광택 소재로 분류되는 디자인의 특징을 가지며, 관능성, 단순성, 여성성, 현대성, 금욕성 5개로 집약했다.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의 유행을 반영하며 다양한 소재와 형태가 재창조되며 변화라는 패션의 특징 속에서도 여성복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김미정(2005)은 파티의상을 위한 패션디자인 연구에서 파티의상 종류에 따라 착용된 의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파티의상 브랜드에 디자인의 지표로 삼고자 했다. 차민경(2011)<sup>12)</sup>은 한국 전통 문양을 응용한 드레스 디자인 개발로 한국 전통 문양, 동물문양, 식물문양, 자연 산수문양, 인물문양, 문자문양, 기하문양으로 분류하고 이런 문양을 활용한 레드카펫 드레스를 제작을 통해 21세기 한국 패션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전미진(2014)<sup>13)</sup>은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 제품 개발과 디자인의 도입으로 웨딩업계에 형태가 확정된 완성품으로 디자인해온 업계의 고정관

념을 깨고 다양성, 경제성, 참신성 등의 장점을 웨딩문화와 부자재 소품산업에 트렌드로 제안하고자 했다. 김희근·조규화(2000)<sup>14)</sup>는 바이어스 드레이핑 디자인 연구로 바이어스 드레이핑의 구성 방법 및 특성을 연구하여 소재의 질감을 살리고, 내재적인 에로티시즘, 최초로 여성에게 부드러운 원단과 몸을 감싸는 케이프를 제공, 다양한 장식적 요소와 해체와의 재구성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양상으로 바이어스 드레이핑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김순분(2007)<sup>15)</sup>은 1950년대 Dior 드레스의 재해석과 드레이핑을 통한 패턴설계로 디올 디자인의 구성적 특징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패션 트렌드를 가미한 원피스 드레스디자인을 개발하여 실제 생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하고자 연구하였다. 한수연·김소영(2008)<sup>16)</sup>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이브닝 드레스의 미적특성에서는 이브닝드레스의 사적고찰을 통해서 이브닝드레스의 미적 특성으로 사치성, 관능성, 역사성, 이국성, 실험성을 도출해냈으며, 특히 발렌티노 이브닝드레스로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프레퍼 슈크(flapper chic), 새틴사이렌(satin siren), 페미닌 아이딜(femine Ideal), 프리덤&판타지(freedom & fantasy), 포스트 모던 글래머러스(postmodern glamorous)로 유행을 나누었다. 드레스에 관한 바이어스 패턴, 한국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미적 분석 등 다양한 부분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의 실질적인 적용과

이론에 집중된 연구에 본 연구는 실질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창의력 있는 패턴의 개발로 작품에 직접 응용, 활용하고자 한다.

### Ⅲ.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디자인 설계

#### 1. 초현실주의 개념과 특성

초현실주의에서 보여주하고자 하는 환상과 꿈에 대한 표현은 드레스가 가지는 환상성과 색시미와 닮아 있다.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에 대한 특징은 패션의 기존 질서와 고정관념의 해체에서 출발된다. 패션의 구조나 구성에 대한 경험지각과 시각의 항상성, 복식의 착장질서나 방법에 대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사고의 혼란을 야기한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 뭘지 모를 낯설음과 의외성을 느끼고 이는 사고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초현실주의 회화나 작품은 문학만큼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인간의 다양한 감정 중 억압되어 있었거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잠재의식들을 가능한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특히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살펴 볼

때 한 양식 안에서 서로 다른 양상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는데 W·하프먼(W·Halfman)은 추상적 초현실주의와 사실적 초현실주의로 분류하고 있다<sup>17)</sup>. 추상적 초현실주의는 오토마티즘(automatism) 수법을 이용하여 반의식 상태에서의 강한 내적 활동을 선과 형태로 표현하여 그 위에 채색된 색감을 가해 더욱 풍부한 연상 작용을 불러 일으켜 준다.

호안미로(Juan Miro)<그림 21>와 입스 탕(Yves Tanguy)<그림 22>이 선호한 오토마티즘에 의한 추상주의 양식이다.<sup>18)</sup> 반면 사실적 초현실주의 경향은 사진과 같이 정밀하고 아주 실질적인 현상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조화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것이 함께 병존하는 환상 세계는 오브제(objet) 도입, 무의식적 짜 맞추, 의식적으로 우연성을 불러 모으는 수법, 형태는 없는데 영상을 일으키는 수법 등으로 꿈의 세계를 제시하려고 한다.<sup>19)</sup>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그림 23>, 막 에른스트(Max Ernst)<그림 24>를 대표로 한 화가들이 정확한 사실주의 양식으로 묘사한 기묘하고 환상적인 꿈의 형상으로 대표된다.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아주 섬세하고도 치밀하며 기묘하게 과장된 표현으로 비현실의 세계를 현실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의 회화는 회화가 단지 아름다워야만 한다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버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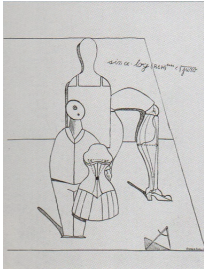
<그림 21>  
Sun, woman and Bird,  
Juan Miro, 1972  
(출처: 'Juan Miro', 1995,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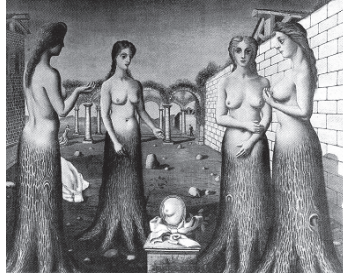
<그림 22>  
Multiplication of the Arcs(1954)  
Yves Tanguy, The museum of Modern Art  
(출처: 'Fashion and Surrealism', 1987, p.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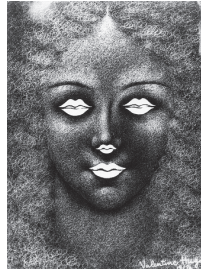
<그림 23>  
Woman with a Head of  
Roses, (1935), Salvador Dali  
(출처: 'Fashion and  
Surrealism', m), 1987, p.90)



<그림 24>  
Plates from Fiat modes,  
pereat ars, Max Ernst(1919)  
(출처: 『Fashion and  
Surrealism』, 1987, p.161)



<그림 25>  
Birth of the Day, Paul Delvaux(1897)  
(출처: 『Fashion and Surrealism』, 1987,  
p.161)



<그림 26>  
three Gold Mouth. Two and  
one, Valentin Hugo  
(출처: 『Fashion and  
Surrealism』, 1987, p.84)



<그림 27>  
Homage to Mack  
Sennett(1934)  
Rene Magarte  
(출처: 『Fashion and  
Surrealism』, 1987, p.75)

으며 그 속에서 진짜 꿈의 세계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같은 착각을 유도한다. 초현실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표현기법은 오도마티즘, 데페이즈망, 콜라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로 나눌 수 있다. 오도마티즘은 무의식 세계를 작품에 표현하려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이며 현실을 넘어서서 무의식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우연과 같은 비논리적인 통찰은 초현실주의가 지향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다.<sup>20)</sup> 작가로는 호안 미로, 입탱과 같은 최초의 초현실주의의 미술가가 있다.

데페이즈망은 프랑스어 사전에 의하면 ‘낮 설음, 낮선 느낌, 환경의 변화, 기분전환’을 뜻한다<sup>21)</sup>. 원래 ‘추방’, ‘떠나다’ 등의 뜻으로 전위법으로 번역된다. 초현실주의에서 대상사이에 이상하고 낮선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sup>22)</sup>.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 조각,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 물질을 붙여 구성하는 기법<그림 25>으로 초현실주의의 작품에서도 기성품에 손질을 가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물체끼리 조합시킴<그림 26>으로써 별개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비유적, 연상적, 상징적 효과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쓰인다<그림 27>. 콜라주는 폴로 “붙이다, 바르다”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콜레(collage)에서 유래된 말이다. 프로타주(frottage)는 나무 조각, 돌, 형겔 등 울퉁불퉁한 물건 위에 종이를 놓고, 연필이나 숟으로 문질

러서 독특한 형태의 모양을 얻어내는 기법이다.<sup>23)</sup> 데칼코마니(decoupage)는 “그대로 옮기다”의 뜻인 프랑스어 데칼케르 와 ‘다시 정리함’이란 뜻의 마니(manie)의 합성어로 전사법으로 번역된다. 일반적인 작업 과정으로 종이 위에 무늬를 전사시키는 방법이다.

## 2. 그리핀& 사비네 작품분석

초현실주의의 표현방법을 가지고 있는 로맨스와 미스터리, 환상의 비주얼 소설인 닉 벤틀의 그리핀&사비네의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며 작가이며 팝·업소설의 창시자인 그는 1949년 영국에서 태어나 현재 캐나다 밴쿠버의 한 섬에서 지내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인 두 주인공 즉 런던에 사는 젊은 화가 그리핀은 사비네라는 여인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핀의 예술 작품과 정신을 투명한 물속처럼 알고 있다. 서로의 이상하고 야릇한 편지의 왕래가 시작되면서 로맨스, 미스터리,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예술 작품을 함께 표현하고 소설이다. 화려한 색깔과 빛나는 그림, 그리고 영감에 찬 창조물과 풍경을 담고 있는 편지와 엽서들이 책속에 있다. 이런 내용조차 초현실주의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이 책 역시 그러하다.





<그림 28>  
닉 벤벡  
(출처: 「그리핀&사비네, 1993, p.8」)



<그림 29>  
닉 벤벡  
(출처: 「그리핀&사비네, 1993, p.10」)



<그림 30>  
닉 벤벡  
(출처: 「그리핀&사비네, 1993, p.16」)

초현실주의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다루고 있는 비주얼 소설 그리핀&사비네<sup>24)</sup>를 영감으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으로 호숫가에 화이트 셔츠와 테일러드 칼라 롱 재킷을 입고 있는 남자의 머리엔 모자 쓴 동물 말의 얼굴로 표현해 이질적인 콜라주의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다.<sup>25)</sup> 호수위에 불상의 얼굴이 놓여져 있기도 하고, 바나나, 파리, 꽃 등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물건과 일상용품의 이동으로 인해 낯선 환경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28>.

반면에 콜라주의 방법으로 미색과 베이지색의 종이를 찢어서 붙이고 그 위에 사람의 모습인지 기린의 모습인지 새인지 모를 일체의 이성에 통제나 미적 도덕적 배려에서 벗어나 펜이 가는대로 쓴 결과물이다<그림 29>. 사비네 스트로렘 남태평양 “시크문제도 카티에 사서함 1F” 라고 타자 글씨체로 쓰여진 이 엽서의 그림은 남성의 피노키오처럼 긴 코가 물고기의 입에 물려져 있다. 이런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으로 가장 원초적인 감성은 인식을 통한 주위환기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우표를 붙여 스탬프를 찍어 콜라주 표현기법을 이용하기도 했다<그림 30>. 특히 <그림 31>은 호안미로가 신문이나 다양한 소재를 콜라주의 기법으로 배경을 만들기도 한 것처럼 이 작품 역시 콜라주로 양쪽에 진한 아이보리 컬러로 붙이고 알 수 없는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함께 표현

하고 그런 표현이 마치 무아지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난 텍스트, 이미지로 인해 오토마티즘의 표현기법으로 초현실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심에 놓여있는 여자의 누드 드로잉은 인체 내부의 뼈나 핏줄 근육을 부위별로 표현하고 심장 그리고 여자의 자궁의 모습을 곰의 코와 얼굴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표현기법은 사물들을 본래의 용도와 기능, 의미에서 이탈시켜 그것이 놓여질 수 없는 또는 표현되어질 수 없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인해 새로운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하는데 데페이즈망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초현실주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엽서위에 표현되어 있고, 이런 작품이 담겨져 있는 봉투위의 그림 또한 형체를 알 수 없는 생선의 머리를 사람의 얼굴과 붙여놓기도 했고, 트랜치 코트를 입은 노루의 모습을 그려 놓기도 했다<그림 32>. 또 다른 편지 봉투에는 남자의 머리정수에서 개의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그려 놓기도 했다.

이렇게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으로 활용된 닉 벤벡의 그리핀&사비네의 비주얼 소설의 엽서 및 편지봉투의 그림을 통해서 표현방법을 알아본 결과 살바도르 달리와 같이 단지 하나의 표현기법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여 초현실주의의 다채로운 표현기법을 활용하였다<그림 33>.



<그림 31>  
니켈록  
(출처: 「그리핀&사비네」, 1993, p.15)



<그림 32>  
니켈록  
(출처: 「그리핀&사비네」, 1993, p.22)



<그림 33>  
니켈록  
(출처: 「그리핀&사비네」, 1993, p.21)

<표 1> 그리핀 & 사비네에 활용된 초현실주의 회화의 표현기법

|        | 오토마티즘   | 데페이즈망   | 복합적인 표현                                |
|--------|---|---|--|
| 대표작품   |   |   |  |
| 인스피레이션 | ·다다의 우연의 법칙+자동연상법   | 다다콜라주의 오브제 사물의 대상성+꿈 무의식의 이질성                                       | 무의식의 그림과 사실적인 여인상을 함께 표현               |
| 표현방법   | ·기호, 부호등의 형태의 원형을 구현하려고 한 추상적 조형언어<br>·꿈의 이미지를 이용한 심리적 자동기술 | ·자연물의 이동<br>·관계없는 일상용품의 이동<br>·인체부위의 이탈 및 이동<br>·관계없는 공간적 이동        | 사진과 같은 정밀함과 형태를 알 수 없는 추상적 조형언어를 함께 표현 |
| 대표작가   | Hoan Miro, Yves Tanguy, Max Ernst, Salvador Dali            | Max Ernst, Paul Delvaux Rene Magritte, Valentin Hugo, Salvador Dali | Salvador Dali                          |

그리핀&사비네에 활용된 초현실주의 회화의 표현기법과 연관하여 <표 1>로 정리해 보았다.

2.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패션의 조형적 시도

초현실주의는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탄생했다. 시각적인 자극과 환상을 제시하는 초현실주의는 차갑고 냉정한 이성을 벗어나길 원하는 대중에게 지지를 받았다. 이런 작업들은 순수 회화가 의복에 표현됨으로써 순수 미술의 개념의 확대라는 점에 초현실주의가 본격

적으로 패션에 활용된 것은 1930년 디자이너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를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초기 초현실주의 화가와의 공동 작업을 주로 하거나 회화의 이미지를 직접 그대로 패션에 옮겨오는 작업이었다<그림 34>.26)

스키아파렐리에 의해 시작된 초현실주의 패션은 입생노랑, 존 갈리아노, 빅터 앤 몰프, 막 제이콥스, 랑방, 모스키노 등의 디자이너로 확대된다. 스키아파렐리는 흰색 레이온 이브닝 가운에 벨트를 한 것처럼 스커트는 마치 스커트에 여러 겹의 자락이 있는 것처럼 페인팅을 해서 착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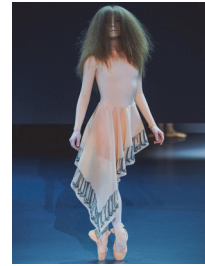
<그림 34>  
Schiaparelli  
(출처: 'Shocking Schiaparelli', 2004, p.143)



<그림 35>  
Comme des Garçon, 2005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6>  
Viktor & Rolf, 2014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7>  
Viktor & Rolf, 2014 S/S  
(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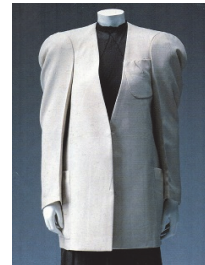
<그림 38>  
Martin Margiela, 1996 S/S  
(출처: 'FASHION', 2002, p.677)



<그림 39>  
Elsa Schiaparelli  
(출처: 'Shocking Schiaparelli', 2004 p.143)



<그림 40>  
Junya Watanabe, 2003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41>  
Martin Margiela, 1998 S/S  
(출처: 'FASHION', 2002, p.676)

를 일으킨다<그림 34>. 이 작품에 영감을 받아 쏘페 가르송은 실크 새틴에 디지털프린트로 마치 스키아파렐리가 한 것처럼 커튼의 자락이 겹쳐지는 플리즈의 이미지를 디지털프린트로 나염하여 마치 그런 주름이 있는 것처럼 선적 드로잉에 의한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디자인을 하였다<그림 35>. 발레리나의 스커트에 험 라인에 주름 잡힌 러플무늬를 살색 PVC에 프린트<그림 36>하여 착시효과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37>. 마틴 마르지엘라는 스웨터의 니트 조직을 실크 새틴에 디지털프린터(Photographic-print style)로 프린트해서 마치 니트웨어(Knit texture)를 입은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게 했다<그림 38>. 스키아파렐리는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원숭이 털을 이용해 상체에 사용하여 인체의 내부에서의 위치변화로 전치를 표현하였다<그림 39>.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는 모델의 헤어 컬러와 같은 인조 금발머리카락을 연장하여 바닥에 끌리게 늘어뜨려 신체부위간의 전치로 초현실주의를 표현하였다<그림 40>. 마틴 마르지엘라는 재킷의 표현에 있어 암홀의 앞으로 이동하여 봉제의 과정 후에 프레스로 눌러 플랫(flat)하게 표현하였다 표현방법과 봉제의 메커니즘으로 인한 착시효과로 입었을 때는 입체적인 효과를 보인다<그림 41>. 디올의 존갈리노는 테일러드 재킷을 베스트와 함께 패턴의 조각으로 디자인하여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재킷을 디자인하였다<그림 42>. 빅터 앤 롤프는 영어로 NO단어를 회색 캐시미어 코트 3-D로 앞 몸판에 입체적으로 형상화되게 문자의 전치효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43>. 메리 카트란츠오(Mary Katrantzou)는 꽃무늬가 있는 러시아의 고급 스런 달걀 공예품(Fabergé egg), 중국 도자기(Ming



<그림 42>  
Dior  
(출처: 『Vogue, Nippon』, July, 2007, p.304)



<그림 43>  
Viktor&Rolf, F/W 2008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44>  
Mary katrantzou,  
2011 F/W, Lond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45>  
Givenchy Couture, 1999 F/W  
(출처: 『FASHION』, 2002, p.608)



<그림 46>  
Schiaparelli  
(출처: 『Shocking Schiaparelli』, 2004, p.143)



<그림 47>  
Marc Jacobs, 1986  
(출처: 『Fashion and Surrealism』, 1987, p.90)



<그림 48>  
Marc Jacobs, 2008 S/S,  
New York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49>  
Mary Katrantzou, 2012 F/W  
(출처: 『The Print Revolution』, 2013, p.128)

vases)를 더 사실적으로 포토그래픽 프린트와 더불어 형태를 만들어 표현했다<그림 44>. 알렉산더 맥퀸의 지방시 컬렉션에서 보인 가죽으로 여자 토르소길이의 상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바디를 그대로 노출한 것과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그림 45>.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스키피아렐리<그림 46>의 패션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디자이너 막 제이콥스는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실제 사람의 손을 활용하여 착시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47>.

그리고 최근 컬렉션에서는 펌프스 슈즈의 힐(heels of pumps)이 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발의 볼로부터 시작해서 형태의 변형으로 익살스럽고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다<그림 48>. 메리 카트란츠는 한국 초현실주의 작가 홍경택의 영감으

로 지우개 달려있는 연필을 사실적으로 포토그래픽 프린트를 활용하여 팝아트의 원천으로 차용하여 표현했다<그림 49>. 폼 데 가르송은 인체의 과장하면서 보따리와 같은 일상용품의 도입을 통해 인체의 과장을 통한 왜곡과 전치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그림 50>.

위빙(waving) 전등갓을 헤어로 사용하여 다양한 오브제의 차용하여 초현실주의의 이미지를 표현했다<그림 51>. 인체 내부에서의 전치를 활용하여 재키 카플란(Jacques Kaplan)의 코트위에 인체를 페인팅<그림 52>하거나 이세이 미야게와 같이 포토 스크린으로 인체의 위아래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표현하기도 했다<그림 53>.

초현실주의 패션은 오브제의 정신분석학적인 상징성과 내적의미를 바탕으로 인체의 내·외부의



<그림 50>  
Comme des Garçon, 2015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51>  
Alexander McQueen, 2009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52>  
Body coat, 1960  
(출처: 'Fashion and Surrealism', 1987, p.68)



<그림 53>  
Pleats Please  
(출처: 'Marie Claire Japan', November 1996.)

<표 2> 초현실주의 패션의 표현기법 및 방법

| 표현기법                     |    | 표현방법                              |  |
|--------------------------|----|-----------------------------------|--|
| 데페이즈망<br>(오브제와 비오브제의 이동) | 차용 | · 외부 오브제의 도입을 통한 전치-일상용품, 자연물의 전치 |  |
|                          | 전치 | · 인체 내부에서의 전치-복식품목간, 신체부위간의 전치    |  |
| 오토마티즘<br>(형태 변형에 의한 왜곡)  | 왜곡 | · 형태의 변형, 과장, 강조, 삭제, 증첩에 의한 왜곡   |  |
| 오토마티즘과 데페이즈망의 표현         | 착시 | · 선적 드로잉에 의한 착시                   |  |
|                          |    | · 소재를 응용한 착시                      |  |
|                          |    | · 표현 메커니즘에 의한 착시                  |  |
|                          |    | · 실루엣에 의한 착시                      |  |

차용과 전치, 형태의 변형과 과장에 의한 왜곡, 실루엣과 소재 표현의 메커니즘에 의한 눈속임에 의한 ‘착시’의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표현방식이 각각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했지만 착시나 전치가 함께 사용되어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초현실주의 패션의 표현기법 및 방법을 <표 2>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 3.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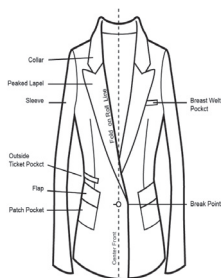
초현실주의 회화의 개념 및 시각적 표현기법을 분석하고, 초현실주의가 패션의 표현기법으로 전치, 차용, 왜곡, 착시에서 패션에 기존의 질서와 고정관념에서 탈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인스피레이션이 된 닉 벤톡의 그리핀&사비네의 소설책에서 실려 있는 일러스트 작

품을 통해서 오토마티즘과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을 함께 표현하여 다양한 방식의 착시효과를 표현함으로써 디자인의 유희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특히 테일러드 재킷과 드레스를 연결한 드레스 디자인은 재킷을 어깨에 걸치는 코디네이션 방식을 새로운 스타일로 제안할 수 있다.

이 책 역시도 기존의 책과는 달리 엽서와 편지를 직접 붙이고 또 우표를 만들어 붙이는 콜라주의 표현방법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형태나 사물에 형태의 착시 효과는 다양한 상상과 환상을 갖게 한다. 이 연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드레스를 <그림 54>에서 보이는 것처럼 밤하늘의 별 빛 속에 여자의 얼굴이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된 것인지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따라서 드레스와 테일러드 재킷<그림 55>을 함께 연결시켜 드레스인지 테일러드 재킷인지에 대한 기묘한 착시효과



<그림 54>  
착시효과  
(출처: 「그리핀&사비네」, 1993,  
p.31)



<그림 55>  
재킷을 드레스에 활용



<그림 56>  
드레이핑을 활용한 재킷을  
드레스로 디자인



<그림 57>  
드레이핑을 활용한 재킷을  
드레스로 디자인



<그림 58>  
칼라를 뒤 패널에서 드레이핑 (front)



<그림 59>  
칼라를 뒤 패널에서 드레이핑 (back)



<그림 60>  
칼라를 뒤 패널에서 드레이핑 (side)

를 만들어 조형적 시각화를 형태화하고자 했다<그림 56>. 테일러드 재킷의 앞 라펠의 오른쪽과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만 라펠을 만들고 왼쪽은 앞 가슴 쪽에서 드레이핑을 잡아서 마치 재킷의 여밈을 겹쳐보이게 입체패턴을 만든다<그림 57>.

테일러드 라펠에 붙을 뒤카라는 뒤 등판에서 드레이핑<그림 58>으로 만들어 연결시켜서 평면의 티셔츠에서 재킷이 만들어 나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초현실주의 착시효과를 표현하고자 했다<그림 59>. 이런 방법을 다양하게 드레이핑을 활용하여 칼라의 시작점을 여러 부분으로 해서 뒤 칼라를 만들어 테일러드 재킷이 드레스에서 마치 생긴 것처럼 다양한 디자인을 하였다<그림 60>. 더불어 다양한 프린트와 페인팅 콜라주를 활용하여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3개의 디자인을 <표 3>과 같이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 IV .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및 제작

### 1. 디자인 제시 및 제작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중 오토마티즘과 데페이즈망의 복합적으로 표현된 그리핀&사비네의 작품에 영감으로 패션에서 활용된 다양한 착시의 효과를 활용하여 재킷을 입은 듯한 드레스로 디자인 했다<표 4>. 드레이핑한 테일러드 칼라와 솔칼라를 변형해서 디자인으로 실루엣에 의한 착시효과를 표현했으며, 초현실주의의 착시를 이용하여 드레스에서 테일러드 칼라가 연결되어 보이게 디자인을 하였다<그림 61>.

드레스 상체의 가슴부위부터 홀터넥을 연상하듯 드레이핑을 한다. 특히 이 부분은 테일러드의

<표 3>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     | 디자인  | 설명  | 드레이핑 앞   | 드레이핑(오른쪽, 뒤, 왼쪽)  |
|-----|--|---|--|---|
| I   |   | 칼라를 뒷판에서 드레이핑으로 앞 테일러드 라펠을 고려하여 착시효과 표현                           |   |   |
| II  |   | 좌측 드레스 몸판에서 홀터넥처럼 목을 감싸게 하고 우측 테일러드 재킷과 만나게 하여 착시효과를 표현           |   |   |
| III |  | 드레스 좌측에서 너치드 라펠을 만들고 솔칼라 재킷 칼라와 연결해서 드레스와 재킷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착시효과 표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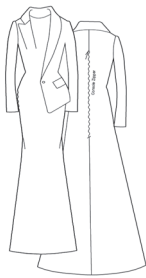
<표 4> 그리핀 사비네에 활용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디자인에 적용

| 초현실주의 표현기법           | 키워드 | 패션에 나타난 표현방식     | 디자인에 적용              |
|----------------------|-----|------------------|----------------------|
| 오토마티즘과 테페이즈망의 복합적 표현 | 착시  | · 선적 드로잉에 의한 착시  | 여자의 인체를 묘사           |
|                      |     | · 소재를 응용한 착시     |                      |
|                      |     | · 표현 매커니즘에 의한 착시 | 위상의 표현을 레이저 번아웃으로 표현 |
|                      |     | · 실루엣에 의한 착시     | 테일러드 재킷과 드레스와의 연결    |

너치드 칼라를 연상하면서 <그림 62>과 같이 드레이핑한다. 또한 너치드 칼라에서 넘어온 우측은 솔칼라로 <그림 63>처럼 드레이핑한다. 머슬린으로 드레이핑된 패턴을 종이 패턴으로 옮긴다.

뒤판의 암홀에 양쪽 소매의 크기가 다른 디자인으로 두 라인을 잘 체크 한다<그림 64>. 드레스의 앞 좌측 몸판의 재킷 라펠과 칼라가 만나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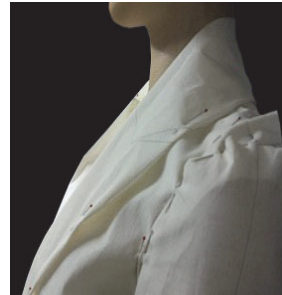
점을 체크하고 솔칼라와 만났을 때 봉제를 고려하여 잘 맞게 앞 평면 패턴에서 다시 수정하여 앞 패턴을 완성한다<그림 65>. 드레스의 테일러드 칼라와 재킷의 솔칼라가 만나는 부분의 사이줄 맞추고, 앞 솔칼라 재킷의 패턴을 완성한다<그림 66>. 특히 재킷의 앞 패턴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은 소매의 치수가 다르며, 재킷의 좌측부분은 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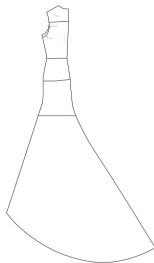
<그림 61>  
착사와 전치를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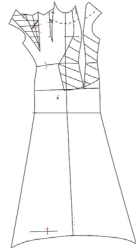
<그림 62>  
드레스 상체에서 라펠과 너치드 칼라  
드레이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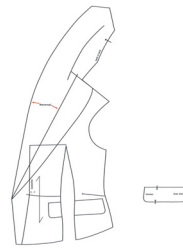
<그림 63>  
너티드 칼라에서 넘어온 우측은 솔칼라로  
드레이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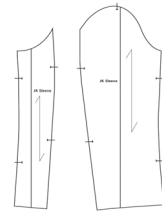
<그림 64>  
뒤 패턴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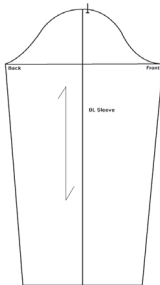
<그림 65>  
앞 패턴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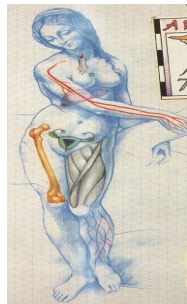
<그림 66>  
앞 솔칼라 재킷 앞판 제작



<그림 67>  
재킷과 연결되는 두장 소매



<그림 68>  
드레스의 몸판인 좌측 한 장  
소매



<그림 69>  
여자의 인체를 전치로사용  
(출처: 「그리핀&사비네」, 1993,  
p.16)



<그림 70>  
레이저로 번 아웃



<그림 71>  
브라운 컬러 워싱

소매<그림 67>와 드레스의 부분인 좌측은 타이트한 한 장 소매<그림 68>로 만들었다.

초현실주의 비주얼소설인 그리핀&사비네의 엽서 일부분인 여자 누드 인체그림 <그림 69>을 프린트 했다. 초현실주의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데님 소재를 활용하여 마치 프린트가 워싱에

의해 마치 그려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이런 표현을 위해서 데님 소재가 진으로 만들어지는 워싱의 메커니즘에서 능직으로 짠 데님소재의 표면을 굽어내어 빈티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착안하여 진의 표면을 레이저로 번 아웃(burn out)시켜 섬세한 표현을 하게 한다<그림 70>. 번 아웃된 데님





<그림 72>  
드레스와 테일러드 라펠과  
칼라의 착시효과



<그림 73>  
술칼라 재킷과 드레스와 함께  
표현



<그림 74>  
사실적 초현실주의 의 여자의  
인체묘사



<그림 75>  
여자의 인체인 다리를  
드레스에 표현



<그림 76> 작품 앞  
테일러드 재킷과 드레스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앞모습



<그림 77> 작품 옆  
앞 몸판에서 테일러드 재킷으로 패턴을  
만들고 그리핀 레이저로 번아웃하여 표현



<그림 78> 작품 뒤  
무당벌레를 레이저로 번아웃하여  
초현실주의 표현

을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다시 오버 다잉(overdyeing)하여 빈티지(vintage)한 표현의 페인팅으로 보이게 하였다<그림 71>.

## 2. 작품제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인 오토마티즘과 데페이즈망을 함께 사용한 그리핀&사비네의 소설내의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재킷이 드레스에 걸쳐진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테일러드 재킷이 드레스에서 형성<그림 72>되게 하였으며, 우측 드레스에서 만들어진 테일러드 칼라는 좌측 재킷의 술칼라<그림 73>와 연결되게 디자인을 하였다. 그리핀&사비네의 엽서에서 보이는 데페이즈망과 오토마티

즘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여성 누드 일러스트를 레이저로 프린트하고 워싱하여 마치 섬세한 워싱기법으로 그림을 그려진 것처럼 표현하였다.

더불어 그림의 섬세한 표현과 빈티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티드<그림 74>와 보석으로 장식하여 고급스러움과 회화적인 느낌을 주고자 했다. 팔과 다리를 드레스에 직접 묘사<그림 75>하여 재미있는 표현과 더불어 착시효과를 내고자 했다. 드레스 긴 스커트 자락<그림 76>은 무당벌레를 프린트하여 자연에서 존재하는 동식물을 대입<그림 77>하여 관찰자를 환기시켜 기괴하고 과장된 즐거움을 주고자 했다<그림 78>.

## V. 결론

본 연구는 이브닝드레스의 등장과 특성을 분석하고,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고자 했다. 특히 패션에 있어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은 이질적 요소의 도입 혹은 정상적인 위치전환으로 인한 전치, 형태의 변형으로 인한 왜곡, 눈속임 기법으로 시각의 착각을 이용한 착시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패션에서의 표현기법이 닉 벤룩의 비주얼 소설 그리핀&사비네 에서도 형태의 변형, 위치전환, 시각의 착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표현 기법 중 착시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드레스 디자인에 재킷을 연결하여 모호한 표현으로 초현실주의를 다양하게 표현한 디자인을 했다. 특히 드레스에서 드레이핑 된 테일러드 재킷의 너치트 칼라 라펠의 표현과 솔칼라로의 연결로 창의적인 데님 드레스를 디자인했다. 데님을 활용한 드레스에 그리핀&사비네의 일러스트와 무당벌레를 활용하여 초현실주의가 패션에서 표현했던 동식물의 이동에 의한 전치의 효과로 표현하고, 데님을 워싱하고 탈색하여 일러스트를 표현한 것처럼 표현기법에 의한 착시효과를 일으키게 했다. 드레스를 만든 이후 레이저로 번 아웃시켜 섬세하고 회화적인 느낌으로 착시효과를 만들었다. 다양한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만든 드레스로 현대 사회의 물질의 발달로 인해 인간 내면의 정신적 공허를 달래기 위해 초현실주의가 표현하고자 했던 꿈과 환상을 표현했다. 더불어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을 드레이핑을 이용하여 독창적으로 만든 데님 드레스로 인해, 창조적 영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디자이너에게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정신적 만족과 위안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런 창의력 있는 디자인과 패턴 연구는 디자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해 본다. 앞으로 테일러드 재킷과 롱드레스가 아닌 원피스 드레스와의 접목하고 진 소재에 한정되었지

만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접목이 필요하며, 프린트에 대한 다채로운 개발로 다양한 소재와 접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신혜순 (2003). 현대패션용어사전, 파주: 교문사, p.153.
- 2)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어: gown), 자료검색일 2015.5.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5166&cid=42822&categoryId=42822>
- 3) Alexandra, B. (2006). The Evening Dress. London: Scriptum Editions, p.21.
- 4) 한수연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이브닝드레스의 미적 특성, 복식문화연구, 16(2), p.251.
- 5) 라사라 교육 개발원 편 (2001). 패션 용어사전, 서울: 라사라 패션정보, p.68.
- 6) 위의 책, p.69.
- 7) Chun pung, X. (2015). 오피트 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이브닝드레스의 색시 룩,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 8) 위의 책 p.12.
- 9)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파주: 교문사, p.334.
- 10)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0). 100 Dresses, ,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p.60.
- 11) 김기례 (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9.
- 12) 차민경 (2011). 한국 전통 문양을 응용한 레드캐펫 드레스 디자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xiv.
- 13) 전미진 (2014).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 제품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 14) 김희연, 조규화 (2000). 바이어스 드레이핑 디자인 연구, 패션 비즈니스 저널, 4(4), pp.1-16.
- 15) 김순분 (2004). 1950년대 Dior 드레스의 재해석과 드레이핑을 통한 패턴설계, 한국기초조형학회, 5(4), pp.397-405.
- 16) 한수연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이브닝드레스의 미적 특성, 복식문화연구, 16(2), p.251.
- 17) 최철 (1996). 초현실주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 18) Robert, A. (1994). 알기 쉬운 현대 미술의 개념풀이, 서울: 시공사, P.148.
- 19) 최향숙 (1989). 초현실주의가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17.
- 20) Alexandrian, S. (2003). 초현실주의 미술, 서울: 열화당, p.52.

- 21)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검색어: 데페이즈망), 자료검색일 2015. 5.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9669&cid=42635&categoryId=42635>
- 22) 안연희 (1999). 현대 미술 사전, 서울: 미진사, p.94.
- 23) 최지희 (2007).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이용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 24) Nick, B. (1993). 그리핀&사비네, 서울: 김영사, p.1.
- 25) 김승아 (2010). 21세기 패션 스타일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 26) 위의 책, p.30.

## A Study on the Dress Design Adapting Surrealism

Lee, Jean Youn

Ph.D., Dept. of Design & craft, Hongik University

### Abstract

The study aims at designing a dress by utilizing a method and expression techniques of surrealism. To achieve a goal, research and analysis wer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appearance of dress and its features according to a period, and it intended to design a dress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dress design through preceding studies and utilizing the expression techniques of surrealism applied on fashion. Expression techniques through surrealism painting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abstract surrealism and realistic surrealism, and these include automatism, depaysement, collage, frottage, and decalcomanie expression techniques. Expression techniques of surrealism are used in fashion, as a way of transposition between inside and outside, variation and distortion of shape like exaggeration, drawing, and trompe l'oeil of material and silhouette. Especially in the illustration represented in the Griffin&Sabine's novel which inspired this study, a variety of surrealist visual expression techniques, such as automatism, depaysement, and collage, are used simultaneously. Drawing shown in the Griffin&Sabine's work was represented through a transposition of a human body out of the expression techniques of surrealism, and draping was designed in dress and jacket through a trompe l'oeil effect.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show like washing finishing on denim material, and at the same time, the laser processing was also made for more realistic expression as if it was printed. It can be said that it is meaningful as design of denim jacket dress and its expression methods can be diversely applied to various fashion items, and also an attempt for stereoscopic pattern using draping in dress and jacket would contribute to creative pattern education and innovative design development.

Key word : draping, evening dress, expression techniques, surrealism, trompe l'oeil